

간호 대학생의 공감 능력이 정신 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Mi Jin Kim*

Dept. of Nursing Scienc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공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6월에 자료 수집하였으며 SPSS.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설명력은 자비심에 18%, 권위주의에 16%, 사회생활제한 영역에 9%, 지역정신보건개념에 4%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가 낮아지고 자비심은 증가되며 사회생활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역정신보건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 같은 노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공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 개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in June, 2017 for the 4th grade students attending the nursing department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PSS.19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mentally ill patients. The explanatory power of empathy ability on each subscale was 18% for benevolence, 16% for authoritarianism, 9 % for social restrictiveness, and 4% for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In conclusion, the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affect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As the empathy increased, the authoritarianism of the mentally ill was lowered, the benevolence was increased, the social life support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was positive, so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was increased over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train and education nursing college students to develop empathy needed for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awareness of the mentally ill.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Benevolence, Authoritarianism, social restrictiveness,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김미진(mjkim@dst.ac.kr)

Received August 16, 2018

Revised August 31, 2018

Accepted September 14, 2018

Published September 30, 2018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소속된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주관적인 태도로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가치관, 계층이나 직업, 개인의 성격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교육수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1]. 그리고 의료진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복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

특히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우 치료적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이 치료적 도구가 되어 상호작용하면서 환자의 안녕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향한 행동변화를 유도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3], 이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환자의 치료경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인식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학생시절부터 정신간호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도록 교육하고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4,5,6]. 이를 위해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치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인간에 대한 이해영역을 시작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가능한 치료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정신간호학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는 교육과정 속에서 정신간호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은 교수의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관련 변수에 대한 중재를 교육과정안에서 제공하고 강조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공감하여 대상자의 만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직이다[7]. 즉, 이러한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으로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8].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의 욕구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이타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게 한다[7].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관계 안에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이타적 행동과 노력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8]. 따라서 이러한 공감의 속성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접근으로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근거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공감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공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학과와 교육과정에서 최종학년에 해당되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선정이유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가 완성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정신 간호학 실습을 마친 상태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에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연구기간 중 언제든지 연구철회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220부였으나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공감능력

Mehrabian과 Epstein[9]의 정서공감 척도, Davis[10]가 제작한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검사, Bryant[11]가 제작한 정서 공감 척도를 박성희[12]가 번안한 것을 토대로 전병성[13]이 재구성한 공감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측정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병성[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 이었다.

2.4.2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Taylor & Dear[14]가 개발한 지역사회 태도 조사(Community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inventory-CAMI)를 용인 정신병원 부속 용인정신의학연구소 이주훈 등[15]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와 접촉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보다는 일반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특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수는 총 40문항이다. 도구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별로 권위주의(부정적), 자비심(긍정적), 사회생활제한(부정적), 지역정신보건개념(긍정적)의 순으로 1문항씩 배열된 설문지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동의하지 않는다’ 4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의 경우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는 하위척도 별로 권위주의 $=.68$, 자비심 $=.76$, 사회생활제한 $=.80$, 지역정신보건개념 $=.88$ 이었으며[14], 이주훈 등[15]이 번역한 한국어판 CAMI의 신뢰도는 권

위주의 $=.56$,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72$, 지역정신보건개념 $=.84$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권위주의 $=.57$, 자비심 $=.70$, 사회생활제한 $=.61$, 지역정신보건개념 $=.76$ 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척도별로 sim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197명(90.8%), 남자가 20명(9.2%)로 여학생이 많았다. 학업성취도는 ‘매우 만족’이 1명(0.5%), ‘만족’이 54명(24.9%), ‘보통’이 118명(54.4%), ‘불만족’이 38명(17.5%), ‘매우 불만’이 6명(2.8%)로 나타나 학업성취도 수준은 80%이상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0명(4.6%), ‘만족’이 101명(46.5%), ‘보통’이 90명(41.5%), ‘불만족’이 14명(6.5%), ‘매우 불만’이 2명(0.9%)로 나타나 90%이상의 학생이 전공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9명(8.8%), ‘만족’이 141명(65%), ‘보통’이 51명(23.5%), ‘불만족’이 4명(1.8%), ‘매우 불만’이 2명(0.9%)으로 나타나 95%이상이 교우관계에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정신실습만족도 분석결과 ‘매우 만족’이 31명(14.3%), ‘만족’이 101명(46.5%), ‘보통’이 59명(27.2%), ‘불만족’이 5명(2.3%), ‘매우 불만’이 21명(9.7%)로 나타나 88%이상의 학생이 보통이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97(90.8)
	female	20(9.2)
Academic achievement	very satisfied	1(0.5)
	satisfied	54(24.9)
	moderate	118(54.4)
	unsatisfied	38(17.5)
	very unsatisfied	6(2.8)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	10(4.6)
	satisfied	101(46.5)
	moderate	90(41.5)
	unsatisfied	14(6.5)
	very unsatisfied	2(0.9)
Satisfaction in friendship	very satisfied	19(8.8)
	satisfied	141(65)
	moderate	51(23.5)
	unsatisfied	4(1.8)
	very unsatisfied	2(0.9)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31(14.3)
	satisfied	101(46.5)
	moderate	59(27.2)
	unsatisfied	5(2.3)
	very unsatisfied	21(9.7)

3.2 대상자의 공감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3±.74, 전공만족도는 평균 3.47±.72, 교우관계는 3.79±.66, 정신실습만족도는 3.53±1.08, 공감능력은 106.01±12.20,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서 권위주의는 평균 34.71±3.75, 자비심 평균 24.8±4.14, 사회생활제한 평균 32.86±3.71, 지역정신보건개념 평균 27.34±4.73점 이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General Characteristic, Empathy, Attitude to the Mentally Ill (n=217)

Variable	M±SD
Academic achievement	3.03±.74
Satisfaction in major	3.47±.72
Satisfaction in friendship	3.79±.66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3.53±1.08
Empathy	106.01±12.20
Authoritarianism	34.71±3.75
Benevolence	24.8±4.14
Social restrictiveness	32.86±3.7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7.34±4.73

3.3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은 권위주의(r=.4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비심(r=-.43,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생활제한(r=.31,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지역정신보건개념(r=-.21,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Empathy and Attitude to the Mentally Ill (n=217)

Variable	Empathy
	r(p)
Authoritarianism	.40(<.001)
Benevolence	-.43(<.001)
Social restrictiveness	.31(<.00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1(<.001)

3.4 대상자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감능력을 독립변수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각 하위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공감 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식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회귀식의 독립변수가 하나이므로 자기상관은 없으며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 가정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n=217)

Model	F(p)
Authoritarianism ^a	41.256 (<.001)
Benevolence ^b	48.364 (<.001)
Social restrictiveness ^c	22.803 (<.00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d	9.586 (.002)

- a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 - Authoritarianism
- b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 - Benevolence
- c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 - Social restrictiveness
- d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 -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Table 5〉 Empathy Influencing on Attitude to the Mentally Ill by Simple Regression. (n=217)

Model	B	SE	β	t	p	Adj R ²
a	.12	.019	.401	6.42	<.001	.16
b	-.14	.021	-.429	-6.95	<.001	.18
c	.094	.020	.310	4.77	<.001	.09
d	-.08	.026	-.207	-3.09	.002	.04

회귀분석결과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자비심 18%, 권위주의 16%, 사회생활 제한 9%, 지역정신보건개념 4%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자의 공감합의 정도는 평균 106.01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6]에서 제시한 107.46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되어 지속적인 공감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하위척도별 분석결과 권위주의는 34.71, 자비심은 24.80, 사회생활제한은 32.86, 지역정신보건개념은 27.34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연실[17]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권위주의 33.54, 자비심 24.86, 사회생활제한 32.64, 지역정신보건개념 26.34와 비교하여 볼 때 일반인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실습 후 동일 조건에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선희[18]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별 점수 결과도 맥락이 일치되었다. 즉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다른 집단의 연구 분석 결과와 유사한 점수로 나타나 태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공감능력은 하위척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영향을 받는 태도는 자비심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특히 공감은 정서적 요소인 자비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비심은 온정적 태도로 정신질환자를 대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태도를 말한다[17]. 즉,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에 대한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태도는 권위주의에 대한 것으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권위주의는 낮아지면서 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요구하고 비인도주의적 감정으로 정신질환자를 대하거나 하위계급으로 보면서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설명력이 크지 않지만 사회생활제한에 대한 설명력은 9%, 지역정신보건개념은 4%로 나타났다. 사

회생활제한에 대한 영향력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정신보건개념에도 영향을 주는 공감능력은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가 함께 살 권리가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을 지역사회에 세워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관점과 간호사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필수 요소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공감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7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CJ. Kim, YS. Kim, & BY. Lee. (1988). The effect of Psychiatric Education upon the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e*, 27(1), 96-107.
- [2] HS. Kim. (2005).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4(3), 276-284.
- [3] HJ. Kim., MS. Yi. (2015).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al Nursing Education*, 21(2), 237-245.
- [4] Emrich, K., Thompson, T.C., & Moore, G. (2003). Positive attitude: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Car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 Mental Health Services*, 41(5), 18-24.
- [5] CH. Noh. (2000).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9(2), 145-155.
- [6] MS. Suh. (2004). A Study on the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3(2), 167-178.
- [7] MO. Kang.(2015).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7, 207-238.
- [8] YY. Hong, YS. Kim.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dolescent Empathy Sca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159-183.
- [9] Mehbrabian, A.,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Personality*, 40(4), 525-543.
- [10]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11]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12] SH. Park. (1994). Experimental Study on Empathy in Relation to the Altruistic Behavior.(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 [13] BS. Jeo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14] Taylor, S. M., & Dear, M. J. (1981).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7(2), 225-240.
- [15] JH. Lee, CS. Lee, TY. Hwang, GS. Han, & YM. Lee.(1996).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ill in Suseo-Ilwon Community. *Yong-In Psychirtry Bulletin*, 3(2), 188-202.

- [16] MS. Chung.(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s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t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 [17] YS. Kim. (2010).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ness Residents, Mental Health Problems and Mental Health Awareness in a Rur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18] SH. Kim. (2012).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of Right in Mentally Ill Persons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김미진(Mi Jin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학사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석사(간호학)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간호학)
- 2011년 9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가족간호
- E-Mail : mjkim@dst.ac.kr